

【논문】

# 「만주국」 시기 南滿洲 촌락의 형성·운영과 농민생활실태\*

윤 휘 탁\*\*

## 차례

- I. 서론
- II. 촌락의 형성과 운영실태
- III. 농민의 생활실태
- IV. 결론

## 국문초록

남만주에서 토지는 극소수 특권층에게 불하되었고 중국인 이민자들에 의해 개간되었다. 개척 과정에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이 극심했다. 남만주의 촌락들은 토지를 선점한 극소수 특권층 대지주와 關內에서 밀려들어온 한족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남만주 촌락에서는 과잉인구와 分家制度에 의해 토지가 零細化되어 생산성이 낮았으며, 이동률이 높았다. 특히 조선인들은 생계곤란 문제로 만주와 조선 사이를 流動하고 있었다. 촌락민 중에는 무직자가 많았고 문맹률이 높았다. 촌락에서는 지주 중심으로 자치가 행해졌고 종교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촌락민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경작방식 등을 둘러싸고 민족적·계급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중국인의 위상이 조선인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각 촌락에는 부재지주들의 소유지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이들 중에는 일본 식민기관이나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하층의 촌락

\* 이 글의 분석대상은 윤휘탁, 2019.4,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만주연구』 제27집)에서 다룬 조사부락과 동일하며, 이 선행논문과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 한경대 교양교육대학 교수.

민들은 생계곤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부분의 촌락민은 보갑비 등의 치안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교육 방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했다. 결론적으로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과 그로 인한 농민층의 양극화, 치안불안이 야기한 엄청난 규모의 부채지주 비율, 높은 인구 이동률, 촌락에 대한 만주국 당국의 식민지적 통제·감시와 宣撫활동, 치안비용의 부담과 노역, 아편 재배의 음성적 조장 등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촌락의 형성이나 사회구성, 운영과정, 촌락민의 각종 생활실태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어: 만주국, 남만주, 북만주, 촌락형성, 개척지, 식민지

## I. 서론

만주 농촌사회는 19세기 중반부터 중국 관내로부터 밀려들어온 수많은 중국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간·개척되면서 새롭게 촌락이 형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산관계 등이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중국 본토와는 다른, 만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더욱이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수많은 조선인과 일본인 농민들이 일본 식민당국의 이주정책으로 만주에 이식되면서 계급(계층)구성이나 민족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특히 만주국 식민당국의 각종 정책이나 통치방식 등에 따라 만주 농촌이나 농민생활 등은 ‘식민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상당한 지역이 항일유격구였던 만주농촌에서는 치안 문제로 인해 노동력의 수급이나 촌락의 구조, 생필품이나 농산물의 시장 반출 등에서도 식민지가 초래한 항일투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1)</sup> 한마디로 만주 농촌사회는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중첩되면서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1)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23-224쪽.

특히 北滿洲 농촌의 경우 토지소유의 극심한 불균등 현상, 토지 無소유자층과 無경작자층의 엄청난 비중, 富農경영의 발달, 농산물의 높은 상품화율과 극심한 가격등락, 일본 식민당국의 戰時경제 통제정책에 따른 농산물의 강제供出과 통제, 일부 지역에서의 치안 불안에 따른 독특한 촌락 운영방식 및 일시적인 노동력 수급 곤란 등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sup>2)</sup> 물론 북만주보다 더 먼저 개척된 南滿洲 농촌의 지역적 특성 역시 동아시아의 중국關內, 조선, 일본 등지의 특성보다는 두드러졌다. 다만 이 글에서는 紙面관계상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 촌락의 형성과 운영실태, 그리고 농민의 생활실태만을 다루려고 한다. 「만주국」 시기 남만주 촌락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에 관해서는 이미 다른 지면을 통해 밝혔다.<sup>3)</sup>

「만주국」 시기 남만주 촌락의 형성과 운영 및 농민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만주국」 國務院 統計處에서 주도적으로 조사<sup>4)</sup>·작성한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1936.4) 및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I·II(1936.5)와, 1935년 「만주국」 國務院 實業部 臨時產業調查局에서 조사국 반장 1명과 직원 2명, 實業部農林技術員養成所의 縣技士 見習生들을 동원해 만주 농촌의 수개 縣을 조사한 뒤 편찬한 『康德三年度 縣技士見習生 農村實態調查報告書』(新京: 同調査局, 1937)들을 기본 분석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鄉村社會調查報告書』의 조사 시기는 1935년(康德2년) 2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였고, 조사 촌락은 奉天省 海城縣 第一區 响堂村 攔河山屯(55호, 390명), 奉天省 西豊縣 第二區 更刻村 忠信屯(45호, 317

2) 윤희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만주연구』 제24집) 윤희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참조.

3) 이 글에서는 '사회구성'이라는 개념이 지주-소작농, 부농-雇農이라는 '계급' 개념과, 半雇農·빈농·중농이라는 '계층' 개념, 민족구성이라는 '민족' 개념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탁, 2019.4,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만주연구』 제27집)를 참조 요망함.

4)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발행지 미상: 同統計處)[이하에서는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이라 약칭함], 1쪽, 87쪽, 161쪽, 379쪽. 당시 조사대상 촌락들의 최대문제는 匪賊(항일무장세력이나 土匪)의 猖獗, 흉수나 흉년에 따른 饑饉 상황, 농작물 가격하락에 의한 농촌공황 등이었다.[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발행지 미상: 同統計處)[이하에서는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이라 약칭함], 1쪽].

명), 熱河省 凌源縣 第一區 十五里堡(23호, 108명), 吉林省 伊通縣 第二區 達子營屯(79호, 566명) 등 4개 촌락이고 해당 농가는 202호, 1,381명이다. 이 농촌조사에는 각 촌락마다 「만주국」 정부의 民政部, 土地局, 財政部, 統計處, 文教部, 滿鐵經濟調査會, 協和會, 縣公署 소속의 공무원 11~14명씩이 참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조사반원들의 규모가 비교적 컸고 조사원들도 전문성을 지녔으며, 그 조사는 「만주국」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이루어졌다.<sup>5)</sup>

또한 『康德三年度縣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査報告書』들 역시 「만주국」 국무원 實業部 산하 農林技術員養成所의 縣技士 見習生들을 동원하고 전문적인 직원들을 파견해 실태조사 활동을 지휘·감독하게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사결과 의 규모나 전문성 등에서 상당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吉林省開拓廳農林科 주관 하에 農事合作社 기술원들이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에 파견되어 조사·작성한 조사보고서<sup>6)</sup>도 같이 분석하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조사시점이 康德 5년(1938)으로 1930년대 후반 농촌사회의 실태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주국」 시기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업경영실태 등에 관한 선행연구들<sup>7)</sup>

- 
- 5) 윤휘탁, 2019.4,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 『만주연구』 제27집, 195쪽.
  - 6)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3,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발행지 미상: 同農林科)이하에서는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査報告書』라 약칭함.
  - 7) 북만주 농촌을 다룬 선행연구로서 대규모 농가들(1만 85호)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적 분석을 한 것으로는 윤휘탁, 2017.12,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북만주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만주연구』 제24집)이 있다. 몇 개 촌락들을 대상으로 미시적 분석을 한 것으로는 윤휘탁, 1991.1, 「1930년대(1934~38) 北滿洲 農村的 社會構成」(『東洋史學研究』 제35집)과 윤휘탁, 2001.4, 「滿洲國 農村的 社會像: 複合 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的 斷想, 1932~1945」(『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집) 등이 있다. 전자는 濱江省 呼蘭縣 孟家村 孟家區와 北安省 綏化縣 蔡家窩堡 2개 촌락에 관한 사례 조사 보고서들을 토대로 1930년대 중반 북만주 농촌의 (半)雇農의 계층분해를 다루었고, 후자는 吉林省 延吉縣 陽城村 A屯과 下村屯을 대상으로 중국인과 조선인 두 민족의 토지 소유 및 경작규모, 이들의 경영실태와 상호간의 민족인식 등을 비교분석했다. 남만주 농촌을 다룬 것으로는 奉天省 梨樹縣의 사회경제구조를 분석한 中兼和津次, 1981,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東京: アジア政經學會)과 윤휘탁, 2019.4,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만주연구』 제27집)이 있다. 전자는 梨樹縣 한 곳을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곧바로 「만주국」 시기 남만주 농촌의 사회경제 구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후자는 남만주의 수개 농촌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

은 대체로 북만주 농촌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만주보다 북만주에 관한 조사보고서<sup>8)</sup>나 통계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북만주를 연구하는 것이 제약이 덜 따르고 용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만주에 관한 연구는 자료상의 제약이 따를 뿐만 아니라, 남만주에 관한 기존의 조사보고서들이 북만주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기보다는 특정의 소규모 지역이나 소수 촌락들을 조사한 결과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만주 농촌에 관한 농촌실태 조사보고서들 중 상당수는 筆耕謄寫本 형태로 남겨져, 일부 통계가 등사 과정에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인용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남만주 농촌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분석 결과보다는 ‘미시적인’ 분석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술한 촌락들을 대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남만주의 촌락형성과 운영실태, 농민생활실태들을 도출해보려고 한다.

---

로 지주·소작관계, 경작실태, 고용관계에서 나타난 농촌사회구성을 비롯해서 농작물의 판매와 가계비 등에서 나타난 남만주 농민의 收支실태 등을 분석했다. 이 조사결과는 북만주 농촌 조사결과보다는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남만주 촌락의 형성·운영 및 농민의 생활실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8) 「만주국」 시기에 조사·편찬된 농촌실태 조사보고서로는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料1, 全3冊)(新京: 同調査局);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6,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料36, 第1~4分冊)(新京: 同調査局);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徳3年度県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料 38~41, 全4冊)(新京: 同調査局, 康徳4年); 滿洲國國務院産業部 編, 1938, 『康徳4年度県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全5冊)(新京: 滿洲國國務院産業部); 滿洲國國務院産業部農務司 編, 1938, 『康徳5年度県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查報告書』(全5冊)(新京: 滿洲國國務院産業部農務司) 등이 있다.
- 9) 윤위탁, 2019.4,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 『만주연구』 제27집, 196-197쪽.

## II. 촌락의 형성과 운영실태

일반적으로 청조 및 중화민국 정부 시기 만주의 개방과 토지불하는 만주족 귀족, 莊頭(官地の 관리인), 典押主(토지 채권자), 攬頭(투기적인 토지 중개인), 官人 鄉紳, 大商人, 대지주, 군인 등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증축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커다란 땅을 拂下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 역축, 농기구 등을 소유한 부유한 극소수 특권층이었다.<sup>10)</sup> 이들은 가는 곳마다 이민자들에 앞서서 아직 개간되지 않은 황무지를 차지하고 있었다.<sup>11)</sup> 이처럼 토지가 불하된 이후 대지주들의 한족 이주자들을 활용한 개간과 소작지 경영, 소비력이 크지만 경제적 경쟁력이 약한 만주족 旗人들의 점진적인 몰락, 극소수 한족들의 토지매입과 대지주로의 변신, 이 대지주들의 토지를 매개로 한 빈한한 이주자들의 유입과 지주-소작관계의 형성, 이를 바탕으로 한 촌락의 형성과 토지소유관계의 극심한 불균등 현상 등이 만주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조사된 南滿洲 촌락들(주로 攔河山屯, 忠信屯, 十五里堡, 達子營屯, 四家子屯)<sup>12)</sup>의 형성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奉天省 海城縣 第一區 响堂村 攔河山屯은 淸 順治 8년 尙王爺(尙可喜, 平南散親王이라 칭하기도 하였음)가 이곳에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것을 계기로 山東, 直隸 방면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의해 형성되었다.<sup>13)</sup> 奉天省 西豐縣 忠信屯은 光緒 14년부터 요동지방의 金州·復州·海城지방에서 이주해온 농민들이 官地를 받아 개간에 종사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후 이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康德 원년(1934) 충신둔이 更刻村에서 분리되어 새로 생겨났다.<sup>14)</sup> 熱河省 凌源縣의 유래를 보면, 이 지역에는 乾隆 3년에 塔子溝廳이, 건륭 43년에 建昌縣이 설치되었다

10) 龜淵龍長, 1915, 『一般民地』(下卷)(大連: 滿鐵調査課), 209쪽; 尹輝鏞, 1991.1, 「1930年代(1934~38)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東洋史學研究』 제35집), 116-118쪽.

11) 滿州史研究會 編, 1964, 『滿州開發四十年史』(上卷)(東京: 滿州開發四十年史刊行會), 711쪽.

12) 이하에서는 이들 촌락을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으로 지칭해 다른 촌락들과 구별하고자 한다.

13)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쪽, 43쪽.

14)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44쪽.

가 民國 3년에 凌源縣으로 개칭되었고, 民國 20년에 凌源, 凌南의 2개현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이곳에 喀喇沁左旗公署가 설치되어 능원현과 능남현 일대에 분포해 있던 몽골족을 관할하게 되었는데, 이 공署 관할에 속했던 十五里堡는 漢人 촌락들에 둘러싸여 고독한 城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십오리보는 지리적으로 능원현에 있었지만 熱河蒙旗인 喀喇沁左旗에 속해 있어서 몽골족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능원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십오리보에 거주하고 있던 4호의 한족만은 능원현의 관할 하에 있었다.<sup>15)</sup> 즉 민족에 따른 관할계통이 달랐던 셈이다. 吉林省 伊通縣은 처음에 ‘伊通河’, ‘伊通州’로 불리다가 民國시기에 현이 설치되면서 ‘이통현’으로 불렸다. 이통현 第二區 達子營屯의 형성연혁을 보면, 이 촌락은 雍正 6년 만주 귀족 那氏가 奉天省 開原縣 廂黃旗에서 황무지 2천 상(晌)<sup>16)</sup> 莊園으로 받아 이를 개간할 목적으로 이곳에 이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나씨가 소유한 2천 상의 토지는 그 후 경작자에게 분양·매각되거나 分家에 따라 분할·세분화되었다.<sup>17)</sup> 이 촌락에서는 개척 초기 극소수 대지주와 다수의 소작인이 공존하면서 극심한 토지소유 불균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길림성 부여현은 청 康熙 21년 10개의 站을 增修하면서 伯都訥站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扶餘縣의 前身이다. 光緒 32년 新城府가 설치되었다가 民國 2년 新城縣으로 개칭되었는데, 直隸省의 新城과 同名이라는 이유로 扶餘縣으로 개칭되었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扶餘縣 四家子屯은 길림성 將軍衙門의 관할 하에 있었는데, 咸豐연간에 길림성에서 감독기관으로서 副督統이 파견되면서 그에게 奉職하는 旗人 役人에게 봉급의 대가로 토지권을 부여해 土着民인 만주족에게 개간케 한 후 그 땅을 소작인에게 경작케 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방과 동시에 1晌地당 熟地 20~30吊의 가격으로 토지가 拂下되었다. 그 후 산동방면에서 이주해 온 漢人들이 旗地를 소작하기 시작했고 미경지를 개간하였는데, 새로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1晌당 660文的 소작료

1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67쪽, 254-255쪽.

16) 1상(晌)은 약 1 에이커(acre)에 해당된다. 1에이커는 약 1.244평이다. [韓相準·趙淳卓 監修, 1977, 『世界單位辭典』(서울: 東南書館), 1198쪽]

17)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84쪽.

를 旗人에게 납부하고 경작하게 했다. 이때 개간된 경지는 약 370상 정도였다. 1938년 조사당시 扶餘縣 四家子屯의 호수는 56호였고, 인구는 353명(남자 174명, 여자 179명)이었다.<sup>18)</sup> 후술하겠지만, 이 촌락에서도 극소수의 부재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수가 그들의 소작인이 되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부여현에서는 원래의 토지가 旗人의 소유였고, 光緒 6년 이전에는 기인이 임의로 토지를 개간해서 경작하고 있었지만, 광서 6년에 淸賦土地局이 설립되면서 토지 소유자는 조세를 부담해야 했다. 광서 9년부터 개간한 토지를 淸丈(측량)해서 地照(토지문서)를 발급하고 지조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때 개간된 熟地는 旗人의 소유 토지로 되었지만, 未墾地는 屯의 공동 소유지로 되었다.<sup>19)</sup>

상술한 것처럼 남만주 농촌은 근대에 들어 개간되기 시작했고 토지의 개방과 불하과정에서 소수의 특권층만이 토지소유의 기회를 얻으면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척지’로서의 남만주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볼 때, 남만주 농촌의 형성 및 토지소유관계는 기본적으로 ‘개척지적 요소’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농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주요 분석대상 촌락들도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표-1〉 남만주 촌락 구성원의 출신지 현황(1935) (단위: 戶, 名)

村落 명칭	호수	만주	山東	河北	河南	기타	內外蒙古	朝鮮	不明	1호당 평균인구
奉天省 海城縣 欄河山屯	55	-	28	20	-	4	-	-	3	7.1
奉天省 西豊縣 忠信屯	51	8	36	3	-	1	-	2	1	7.8
熱河省 凌源縣 十五里堡	54	4	1	-	-	-	49	-	-	5.4
吉林省 伊通縣 達子營屯	79	21	32	5	1	5	-	14	1	7.2
합 계	239 (100.0)	33 (13.8)	97 (40.6)	28 (11.7)	1 (0.4)	10 (4.2)	49 (20.5)	16 (6.7)	5 (2.1)	

〈출전〉 출신지 현황은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部落ノ沿革」, 9쪽에서; 1호당 평균 인구수는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 92, 162, 381쪽에서 산출.

18)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5-6쪽, 65쪽, 75-79쪽.

19)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119쪽.

먼저 1935년 남만주 촌락 구성원의 출신지 현황(표-1)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몽골에서 건너온 凌源縣 十五里堡의 몽골족 촌락을 제외할 경우, 조사 대상 촌락구성원들은 山東省 > 만주 > 河北省 > 조선 출신 순으로 많았다.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의 경우에도 전체 농가 56호 가운데 산둥성 출신이 35호로 전체의 62.5%에 달했다. 이처럼 만주 이주자들 중에는 산둥성 출신이 가장 많았다.<sup>20)</sup> 상술한 4개 촌락의 민족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몽골족이 96.3%(52호, 269명), 한족이 3.7%(2호, 7명)를 차지한 十五里堡<sup>21)</sup>를 제외하면 나머지 촌락은 한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忠信屯 역시 한족촌락이었는데 거기에 雜居하고 있던 조선인 2호는 중국인으로부터 水田을 차입해 경작하고 있었다.<sup>22)</sup> 伊通縣 達子營屯에는 한족이 57%(45호, 381명)를, 만주족이 25.3%(20호, 122명), 조선족이 17.7%(14호, 63명)를 차지하여 다민족 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sup>23)</sup> 이 촌락으로 이주한 조선인 농가 14호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평안북도가 12호, 강원도가 1호, 조선 京城府가 1호였다. 이들은 이전에 거주하던 곳에서 無職者 생활을 한 1호를 빼고 모두 소작농 생활을 하다 생활곤란 때문에 주로 친구에 의탁하려고 본 촌락으로 이주했다.<sup>24)</sup> 그리고 각 촌락의 1호당 평균 인구수를 보면 海城縣 攔河山屯은 7.1명, 西豐縣 忠信屯은 7.8명, 凌源縣 十五里堡는 5.4명, 伊通縣 達子營屯은 7.2명으로 5~8명 정도였다. 달자영둔의 민족별 1호당 평균 인구수는 한족이 8.5명, 만주족(旗人)이 6.1명, 조선인이 4.5명<sup>25)</sup>으로 한족 > 만주족 > 조선인 순으로 많았다. 조선인 농가의 1호당 인구수가 적은 원인은 빈한해서 부양 능력이 떨어진 데도 있었겠지만, 전 가족이 모두 조선에서 만주로 이주하지 못한 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만주로 건너온(渡滿) 시기를 살펴보면, 攔河山屯의 경우 50~100년 된 농가가 3호, 100~200년 된 농가가 6호, 200년 이상 된 농가가 전체의

20)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69쪽.

2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34쪽.

22)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00쪽.

23)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I 部落ノ沿革 2 各世帯ノ民族別ニ觀タル部落ノ構成」, 9쪽.

2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0.11 部落內各世帯ノ略歷(一),(二)」, 14-15쪽.

25)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81쪽.

78.2%(43호)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十五里堡에서는 100~200년 된 농가가 3호, 200년 이상 된 농가가 90.7%(49호)를 차지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만주 이주시기가 오래되었다. 이들 촌락은 개척시기가 상대적으로 오래되어 인구의 유입이 적고 안정성을 띠고 있었다. 반면에 忠信屯의 경우, 50년이 안 된 농가가 각각 14호(27.5%), 50~100년 된 농가가 각각 14호(27.5%), 100~200년 된 농가가 각각 8호(15.7%), 200년 이상 된 농가가 각각 4호(7.8%) 밖에 안 될 정도로 인구의 유입시기가 짧았다. 達子營屯의 경우에는 이 양자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sup>26)</sup> 특히 달자영둔의 조선인 농가들은 모두 1934~1935년에 본 촌락으로 이주했다.<sup>27)</sup>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들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移動통계가 불명확한 忠信屯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촌락에서는 각각 19.1%, 17.9%, 10.9%를 나타냈고, 이동원인은 주로 婚姻, 出稼(돈벌이), 通學, 기타 등이었다. 혼인에 따른 이동률은 각각 46.7%, 81.3%, 60.9%였고, 돈을 벌기 위한 이동률은 각각 47.8%, 6.3%, 13.0%였다.<sup>28)</sup> 攔河山屯을 제외하면 돈벌이를 위한 이동률은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移動先을 보면, 88건 가운데 縣內가 48건(54.5%), 「만주국」내가 29건(33.0%), 屯內가 5건(5.7%), 조선이 5건(5.7%), 불명이 1건이었다. 조사대상 촌락민들은 주로 현이나 「만주국」내로 이동하였고, 조선인이 雜居하고 있던 길림성 伊通縣 達子營屯에서는 5건이 조선으로 이동하고 있었다.<sup>29)</sup>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주층은 居住年數가 매우 오래된 반면에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들의 거주연수는 비교적 짧았다.<sup>30)</sup> 이것은 생활형편이 어려웠던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들은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경작조건이나 노동조건을 찾아 이곳저곳을 전전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북만주 농촌에서도 그랬듯이, 남만주 농촌, 특히 달자영둔의 경우

26)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9쪽, 「I 部落ノ沿革 3 各世帯ノ渡滿年代別ニ觀タル部落ノ構成」.

27)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4-15쪽, 「10,11 部落內各世帯ノ略歷(-),(二)」.

28)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57쪽, 「IV 移動人口 No.1,2,3,4 現住人口ト移動人口, 移動人口ノ移動原因別」.

29)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60-61쪽, 「IV 移動人口 No.1,3,4 人口移動ノ移動先別, 職業別」.

30)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0-21쪽, 「4 各世帯ノ經營面積別ニ觀タル部落ノ構成」.

1932년에 만주사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1934년에는 수해가 이 촌락을 덮쳐 이 지방일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기아선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주위에서 비교적 부유하다고 평가받던 이 촌락에서도 촌을 떠나가거나 실직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다.<sup>31)</sup> 그 중에서도 조선인들은 생계곤란 때문에 안착하지 못하고 만주와 조선 사이를 流動하면서 방황하고 있었다.

〈표-2〉 現居住 촌락으로 이주한 원인(1935)

촌락명	天災	匪害	開墾	招墾	토지 상실	생활 곤란	친척 의탁	기타	계
奉天省 海城縣 欄河山屯	-	-	13	7	3	18	-	14	55
奉天省 西豊縣 忠信屯	5	3	1	13	1	15	-	13	51
熱河省 凌海縣 十五里堡	-	-	49	3	2	-	-	-	54
吉林省 伊通縣 達子營屯	5	5	20	24	-	14	-	11	79
합계	10 (4.2)	8 (3.3)	83 (34.7)	47 (19.7)	6 (2.5)	47 (19.7)	-	38 (15.9)	239 (100.0)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	-	-	-	-	-	5	1	2	8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0쪽, 「I部 落ノ沿革」; 『扶餘縣四家子屯 村實態調査報告書』, 115-116쪽.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민들이 현 촌락으로 이주한 원인으로는, 招墾이나 開墾에 응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가 절반이 넘는 54.5%를, 생계곤란 때문이 19.7%, 天災나 匪害 때문이 각각 4.2%, 3.3%, 토지를 상실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기 위해서가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동현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한족이나 만주족들은 오래 전에 招墾이나 開墾에 응해 이주했지만, 達子營屯의 조선인들은 小作생활을 하다 생계곤란 때문에 이주했다는 점이다. 扶餘縣 四家子屯의 소작인들 중에도 생계곤란 때문에 이 촌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그밖에 年工이나 行商을 하다 직접 농사짓기 위해 혹은 아무런 생활 방침 없이 무작정 친척에게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이주한 사람도 있었다. 사가자둔 소작인들의 주요한 이동원인은 촌락 내에서 타인과의 감정악화나 집을 빌릴 수 없었던

31)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84쪽.

점이었다. 오히려 소작조건의 악화, 토지 생산력의 저하, 負債의 重壓, 천재 지변에 의한 경제적 피해 등의 요인에 의한 이동은 적었다.<sup>32)</sup>

향촌사회조사 대상 촌락들인 攔河山屯, 忠信屯, 十五里堡, 達子營屯에서는 평균 3.1~4.5명을 출산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각 13.4%, 27.2%, 32.1%, 13.3%의 嬰幼兒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었다.<sup>33)</sup> 1930년대 중반 의료시설과 생활환경이 열악한 남만주 농촌에서의 영유아 사망률은 13.3~32.1%를 나타낼 정도로 매우 높았던 셈이다.

〈표-3〉 現住 인구의 직업별 농촌사회구성 현황(1935)

部落 명칭	농업	농업 노동자	기타 노동자	공업	공업 노동자	상업/ 종사자	公務 自由業	기타	학생	無業 家族	합계	1호당 인구
海城縣 攔河山屯	68	13	5	1	12	6	1	-	37	247	390	7.1
西豐縣 忠信屯	79	38	4	-	6	4	6	-	30	229	396	7.3
凌源縣 十五里堡	64	22	6	-	2	1	-	-	4	194	293	5.7
伊通縣 達子營屯	140	57	5	1	2	-	6	1	4	350	566	7.2
합 계	351 (21.3)	130 (7.9)	20 (1.2)	2 (0.1)	22 (1.3)	11 (0.7)	13 (0.8)	1 (0.1)	75 (4.6)	1,020 (62.0)	1,645 (100.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III 現住人口 1 戶數ト人口 및 3 現住人口ノ職業別構成」, 37쪽.

이전에 살던 곳(前住地)에서의 직업을 살펴보면, 攔河山屯과 西豐縣 忠信屯에서는 燒鍋業 番頭(반장), 직공, 鐵工으로 일하거나 煎餅舖(떡집)나 과자점 운영, 약품 판매업, 線香(향) 제조업 등 상업 종사자, 의사, 梨窩子(배 果樹 종사자), 농장 관리인(莊稼人)으로 일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농업종사자(자작농, 소작농, 年工, 日工)였다. 특히 熱河省 凌源縣 十五里堡에서는 전에 살던 곳에서의 직업이 100% 농업종사자들이었다. 吉林省 伊通縣 達子營屯에서는 특이하게도 兵士로 근무하다 현재의 촌락으로 이주한 농가가 12호였고, 의사였던 호수가 2호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농업종사자들이었다.<sup>34)</sup> 극소수의 상업 종사자나 병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남만주 농촌을 전전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종사자들이었던 셈이다.

32)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116쪽.

33)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53-54쪽, 「No.1,2,3,4 既婚婦女年齡別出生死亡生育狀況」.

3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No.1,2,3,4 部落內各世帯ノ略歴」, 11-15쪽.

각 촌락거주 인구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표-3) 참조, 無業·無職 가족이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에는 가정주부나 노약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다음으로 농업경영자가 큰 비중(21.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농업노동자 비율(7.9%)까지 합친다면 농업종사자 비중은 29.2%로 거의 1/3에 육박하고 있었다. 농업과 공업, 기타 분야 노동자 비중은 10.4%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밖에 학생 비중이 4.6%, 官公吏·村長·甲長·군인(自衛團員, 保甲兵)·의사·教員·회사원·승려·巫女·産婆 등이 포함된 公務自由業 종사자 비중도 0.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촌락의 1호당 평균 인구수는 5~7명 정도였다.

그렇다면 만주농촌의 통치운영체제는 어떠했을까? 중화민국 시기에는 만주 각지에 현이 설치되면서 縣長이 旗人이나 民人을 모두 통치했다. 만주의 각 縣에는 2명의 左領과 1명의 巡檢이 배치되었는데, 左領은 각각 正黃旗와 鑲黃旗를 통할했고 순검은 民人을 지배했다. 순검 밑에는 각 촌락마다 1명의 鄉約과 2명의 派頭가 배치되어 촌락민인 한족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급료를 지급받고 있던 이들에게 사법적 권한은 없었다. 宣統 6년 이전까지 旗人은 납세의무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는 민인이 부담하는 세금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었다. 民國 3년(1914) 각 현에는 점차 區長-甲長-十家長의 조직체계를 갖춘 保甲制度가 실시되었다. 구장, 갑장, 십가장은 모두 공식적으로 선출되었는데, 구장에게는 80원, 갑장에게는 20원의 월급이 지급되었다.<sup>35)</sup>

「만주국」 시기 중국인 촌락에는 대부분 종교적 대상으로서 廟가 있었다. 묘는 대체로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뛰어난 인물, 특히 關羽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關帝廟였고, 다른 하나는 초인간적이고 농작물의 풍흉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龍의 神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龍王廟가 있었다.<sup>36)</sup> 특히 상술한 大新屯村의 사례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만주국」에서는 표면적으로 종교신앙의 자유와 전도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문교부의 禮教司나 民生部の 社會司, 治安部 警務司의 特務科, 興安司, 協和會 등을 통해 종교에 대

35) 『郷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382-383쪽.

36) 碓氷武, 『南滿洲の農村』(東京: 地人書館, 1940), 147쪽.

한 통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종교를 日滿協治, 더 나아가 일본의 「만주국」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했다.<sup>37)</sup>

海城縣 攔河山屯의 경우, ‘攔河山村會’(후에 ‘攔河山公會’로 개칭)가 조직되어 있었고 모든 촌락민(屯民55호, 390명)은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이 공회에는 會首 8명으로 구성된 ‘三義會’라는 유력한 의결기관이 있어서 촌락의 원활한 자치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 회수들이 매년 교대로 村董과 學董을 맡았다. 촌동은 本屯을 대표하는 촌장(主村인 响堂村의 村長)의 명을 받아 村費징수, 도로수선 감독, 戶口·가축 조사, 분쟁조정 등을 담당했다. 학동은 촌동을 보좌해서 학교서무를 담당하고 회계를 감사했다. 촌동과 학동에게는 1년에 30원의 보수가 지급되었다. 난하산촌회는 1년 두 번(음력 1월 15일, 4월 28일) 常會(大會라 불림)를 개최했고, 촌락에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臨時會(小會라 불림)를 열어서 협의했다. 이 회의의 의장은 촌동이 맡았다. 회의는 학교에서 열렸고 회의가 끝나면 廟에 가서 참배하는 것을 의례로 삼았다. 그런데 1934년 「만주국」의 縣公署에서는 縣內 屯公會의 폐지를 명하였고 그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둔공회가 없어졌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촌동과 학동을 포함한 8명의 감시원들이 屯의 자치, 특히 재정사항에 관해 의결을 행하면서 실권을 쥐고 있었다.<sup>38)</sup>

사실상 몽골족 마을인 능원현 십오리보의 몽골족들은 생활양식이 漢人化했고 일상용어나 의식주, 冠婚葬祭, 신앙, 年中행사 등 거의 모든 것이 한족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한인화한 이들은 중화민국 정부의 압박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했다. 특히 이것은 토지의 地目이 얼마나 한족들에게 유리하게 정리되었는지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한인화한 이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 촌락의 몽골족은 정부에 대항해서 혹은 중앙정부와는 완전히 분리된 屯의 자력으로 자신들만의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나 공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와 자신의 가족·친족 등 직접 자신과 관계있

37) 이경민, 2018,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불교」, 『동아시아 각국에서 바라본 만주·만주국』(201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집, 2018.11.30.~12.1, 동아대 석당학술원과 만주학회가 공동으로 개최), 109쪽.

38) 『鄉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20-21쪽, 43-44쪽.

는 자들을 위한 강고한 혈연적 공동생활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촌락에는 한족 농가가 2호 있었지만, 몽골족과 한족 간에는 감정의 골 없이 協和와 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촌락민의 종교는 喇嘛教였고 촌락 내에 廟가 하나 있었지만 湯玉麟의 第12軍의 침략을 받아 황폐화되고 파괴되었다. 이 촌락에는 공동소유의 토지들, 즉 라마교 사당에 부속된 喇嘛廟地, 공동묘지인 墳塋地, 신분적으로 중요시되지 못했던 여자나 아이들의 공동 매장지인 ‘亂葬崗兒’가 있었다. 라마묘지는 喇嘛僧이 관리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촌락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다.<sup>39)</sup> 당시 여자나 아이들은 남자들과 함께 공동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별도의 장소에 아무렇게나 매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난하산둔의 인근에 위치한 大新屯村에는 「만주국」 宣撫小委員會의 命에 따라 1934년 8월 당시 10명으로 ‘宣撫班’이 조직되어 있었다. 이 선무반에서는 宣撫工作<sup>40)</sup>의 일환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소학교나 廟에서 촌락민들을 대상으로 「만주국」의 통치이념인 ‘王道主義’를 강의·선전하고 風俗矯正, 勤儉崇尚의 내용들을 주입시키고 있었다. 1933년 6월 조직된 治安維持會 산하의 宣撫小委員會는 치안 유지에 관한 宣撫 업무를 통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당시 선무공작을 전담한 선무소위원회의 임무는 傳單·포스터·小冊子·傳單·사진 등의 배포, 영화 및 연극단의 순회공연, 구휼품·의약 재료의 배급, 保甲연좌제의 이용·강화, 廟會·祭典 등을 이용한 선전, 慰安會·敬老會의 개최, 村長·유력자 사이의 간담회 개최, 日語강습, 移動宣撫班의 순회, 대외선전 등이었다.<sup>41)</sup>

난하산둔에는 三官(天官, 地官, 水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워진 三官廟가 있었고, 소학교 옆에 기와 담(煉瓦塼)으로 둘러친 藥王廟도 있었는데, 소학교의 小使가 매월 1일, 15일에 향을 피우고 藥王에게 제사를 지냈다. 촌락민 중에 병이 든 자가 있으면 이곳에 와서 쾌유를 기원했다. 그리고 火·水·木·金·土 五道の 神에게 제사지내기 위해 土地廟도 세워져 있었는데, 사람이 죽

39)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27-228쪽, 259쪽, 334-335쪽.

40) 「만주국」의 치안숙정공작과 宣撫工作 등에 관해서는 尹輝鏞, 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서울: 一潮閣)을 참조 바람.

41) 滿洲國民政部資料科 編, 1933, 『滿洲國民政年報』(1934年版)(新京: 同資料科).

으면 마을 사람들은 이 廟에 와서 死者가 西方淨土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sup>42)</sup> 이처럼 남만의 촌락들에서는 실제 조직에 의해 나름대로의 자기 규율이 갖추어졌고 공동체적인 의례나 종교활동 등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도 촌락민들에 대한 통제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西豐縣 忠信屯에는 村長 1명(월 급여 20원), 村副 2명(월 급여 15원씩), 자위단장 1명(월 급여 12원), 자위부단장 1명(월 급여 10원), 自衛團丁 13명(월 급여 7원씩)이 조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촌락을 통제·지도했다. 학교 운영비는 6개월마다 105원이었고 도로 수리비로 매년 300원이 책정되어 있었다.<sup>43)</sup> 이 촌락에는 廟의 敷地 47.5畝가 있었는데 그 일부가 村公所 및 학교부지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30여 무는 소작지로 운영되어 소작료로 高粱 4석 반, 大豆 4석 반을 얻어 공과금으로 11월 75전, 廟守 수당 1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은 제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1933년부터 西豐縣에서는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義倉을 각 區에 지어 가을 수확기에 高粱 약간씩을 징수·저장해서 음력 5월에 창고를 열어 빈민들에게 貸付하고 있었다.<sup>44)</sup>

부여현에서도 만주족이나 몽골족의 사립학교 경영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공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즉 사립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滿蒙學田’과, 山東인들이 자신들의 寺廟 재산과 遺産을 합쳐 교육목적으로 설립한 山東會館의 유지비에 충당하기 위해 ‘山東學田’을 가지고 있었다. 縣 소유의 학전에서 얻어지는 소작료는 縣立학교 교육비에 충당되었다.<sup>45)</sup>

扶餘縣 四家子屯의 통치운영체제를 보면, 1938년 이후 街村制가 실시되면서 촌장의 경우 屯長會議에서 뽑힌 2명 중에 1명을 縣의 행정과에서 낙점해 임명했다. 屯長은 籌備處에서 3~4명의 屯내 유력자를 지명하고 屯民이 선거해서 주비처에 보고하면 주비처는 縣에 발령을 요청했다. 牌長은 10戶 내에

42)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77-78쪽.

43)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27쪽, 134쪽. 참고로 奉天省 海城縣 第三區 大新屯村立 소학교의 운영비 실태를 보면, 歲入은 이자 大洋 50원, 학생의 학비 대양 40원이었고, 歲出은 교원 봉급 대양 162원, 교역 지출비 대양 20원, 辦公費·임시 잡비·기타 대양 25원이었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83쪽).

44)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34-135쪽, 165쪽.

45)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119쪽.

서 추천된 자를 주비처에서 결정했다. 촌장의 임무는 자치, 도로 改修, 농사 합작사 관계 일, 교육, 호구조사, 家畜家禽 조사, 縣公署와 둔의 연락업무 등이었다. 둔장의 임무는 도로의 개수, 호구조사, 가축가금 조사, 둔의 약한 자 보고, 세금징수, 義倉糧穀의 납부독촉, 종자배급, 토지매매 날인, 둔민의 이주증명서 청구, 사무소의 마차·부역 징발의 할당, 재해 및 이재민의 보고 등이었다. 폐장의 임무는 둔장을 보좌하는 것이었다.<sup>46)</sup>

〈표-4〉 現住인구의 교육정도 현황(1935)

部落 명칭	未就學	在學生					졸업자·中退者			無교육자		합계
		私塾	초급 小學	고급 소학	중학 이상	계	私塾	학교	계	識字	不識字	
海城縣 欄河山屯	111	-	40	4	-	44	21	50	71	2	162	390
西豐縣 忠信屯	80	5	26	2	2	35	26	46	72	13	196	396
凌源縣 十五里堡	68	2	2	1	-	5	25	9	34	1	185	293
伊通縣 達子營屯	147	1	1	2	-	4	26	9	35	10	370	566
합 계	406 (24.7)	8 (0.5)	69 (4.2)	9 (0.5)	2 (0.1)	88 (5.3)	98 (6.0)	114 (6.9)	212 (12.9)	26 (1.6)	913 (55.5)	1,645 (100.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4 現住人口ノ教育程度別構成」, 38쪽.

향촌사회조사 대상 촌락구성원들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표-4〉 참조), 미취학자 비중은 24.7%였다. 즉 4명 중 1명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는 취학연령에 미달해서 입학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 이외에 경제사정 등으로 입학할 수 없는 농가의 자녀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初級小學은 1~4학년, 高級小學은 5~6학년 과정이었는데<sup>47)</sup>, 초급소학과 고급

46)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286-287쪽.

47) 1937년 5월 「만주국」에서 ‘新學制’가 공포되고 1938년 1월부터 신학제가 시행되면서 종래의 학제도 많이 달라졌다. 즉 6년제의 초등학제는 4·2년제로 바뀌어, 종래의 初級小學은 4년제의 ‘國民學校’로, 종래의 고급소학은 2년제의 ‘國民優級學校’로 바뀌었다.[우휘탁, 2016.9,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8집; 「所謂“新學制”의制定」, 허청선·강영덕·박태수 주필,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2(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03), 330-331쪽; 「間島省教育例規述略」(1934-1939), 間島省公署 編, 1939, 『間島例規集』(1988, 『延邊文史資料』 第6輯에 所收)(위의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2, 401쪽); 杜云, 2009.2, 「偽滿時期師範教育與同期日本師範教育比較分析」, 『長春理工大學學報』(高教版) 第4卷 第2期, 80쪽; 武強 主編, 1993, 『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 第二輯(長春: 吉林教育出版社), 285쪽, 290쪽].

소학의 在學생 비중은 4.7%였고 중학교 이상의 고학력 재학생은 2명(0.1%)에 불과했다. 私塾이나 정식학교의 졸업자·중퇴자 비중은 12.9%였다. 재학생과 졸업자·중퇴자의 비중은 18.2%였다. 이처럼 조사촌락 구성원들의 교육정도가 낮다보니 글자를 못 읽는 문맹자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5.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攔河山屯의 경우, 미취학 연령자를 제외하고 7세 이상의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 識者層은 38.7%, 無識者層은 61.3%에 달했다. 이 촌락의 소학교 재학생들의 연령대는 7~15세까지였으며, 就學 연령대에 속한 7~15세 아동 72명 가운데 취학자 수는 48명으로 취학률은 66.7%였고 미취학률은 33.3%(24명)였다. 이 촌락의 소학교 재학생 38명의 家長 직업을 보면, 관리 2명, 농민 25명, 공업 종사자 7명, 상업 종사자 2명, 군경 2명이었다. 소학교 운영비는 총 450원이었는데, 이 중 학비가 105원, 本屯의 보조금이 345원이었다. 이 운영비 중에 교원의 봉급으로 300원, 學董의 봉급으로 30원 등이 지출되고 있었다. 난하산둔을 포함해서 海城縣 第一區 响堂村公所 관할 내의 학령 아동 및 취학상황을 보면, 7~15세의 학령 아동 1,425명 중 소학교 재학생 수는 25.8%인 367명이었다.<sup>48)</sup>

〈표-5〉 攔河山屯 소학교의 학년별 수업과목 및 每週 時數(1935)

구분	修身	國語	日語	算術	自然	手工	圖畫	體操	音樂	계
1년	2	8	2	5	1	2	2	3	3	28
2년	3	7	2	5	1	2	2	3	3	28
3년	2	9	2	5	1	2	2	3	3	29
4년	2	9	2	5	-	2	2	3	3	28
합계	9	33	8	20	3	8	8	12	12	113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69쪽.

난하산둔 소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보면(〈표-5〉 참조), 4년 동안 국어 시간이 매주 7~9시간씩, 算術이 매주 5시간씩, 체조와 음악이 각각 3시간씩, 修身이 2~3시간씩, 日語, 手工, 圖畫가 2시간씩, 자연이 1시간씩 배정되었다.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면 국어, 즉 중국어 쓰기와 읽기에 많

48)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46쪽, 68-70쪽, 82쪽.

은 시수가 배정되어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되, 식민통치 교육의 일환으로 수신과 일어 과목 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었고 필수 교과목으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신 과목은 학생들에게 일본의 식민통치이념을 주입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sup>49)</sup>

「만주국」에서는 원활하게 식민통치를 하기 위해 지배민족의 언어인 일어 교육을 점점 중시했다. 특히 1937년 5월 ‘新學制’<sup>50)</sup>가 공포된 이후, 일본어는 「만주국」의 ‘國語’ 가운데 하나로 승격되었고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일본어 수업시수는 중국어 수업시수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일본어가 「만주국」의 공용어로 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강요받기 시작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일본어 시험을 치르도록 했으며, 모든 정식문서는 日文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했다.<sup>51)</sup> 이처럼 일본 식민당국이 일본어를 국어로 승격시키고 일본어 학습시수를 증가시킨 것은,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일본어를 통해 「만주국」의 구성원들이 소위 ‘日滿一德一心’의 정신을 기초로 일본정신 및 일본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일본어로 하여금 「만주국」의 공용어로 기능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sup>52)</sup> 일본 식민당국은 일본어를 ‘국어’로 만들어 「만주국」민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친일관념을 지닌 ‘제2세대 국민’을 양성하려고 했던 셈이다.<sup>53)</sup>

49) 「만주국」의 교육이념과 학교 실태에 관해서는 尹輝鏞, 2016.10, 「滿洲國의 教育理念과 朝鮮人 教育」(『中國史研究』第104輯); 윤휘탁, 2016.9,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한국민족운동사연구』제88집) 참조.

50) 「신학제」의 추진 취지에 관해서는 「滿洲國의 教育制度(四)」, 『滿鮮日報』 1940년 6월 4일자, 1면 및 「滿洲國의 教育制度(五)」, 『滿鮮日報』 1940년 6월 6일자, 1면 참조.

51) 「所謂“新學制”的制定」, 허청선·강영덕·박태수 주필, 2003,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2(연길: 연변교육출판사), 331쪽.

52) 「滿洲國의 教育制度(三)」, 『滿鮮日報』 1940년 6월 4일자, 1면.

53) 楊家余·計國菊, 2008.1, 「試析偽滿學校教育制度及其特點」, 『合肥師範學院學報』第26卷 第1期, 33쪽; 尹輝鏞, 2016.10, 「滿洲國의 教育理念과 朝鮮人 教育」, 『中國史研究』第104輯, 191쪽.

### Ⅲ. 농민의 생활실태

「만주국」에서는 ‘民族協和’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민족 갈등이나 우열, 민족관계나 위상, 상호인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통제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1939년 滿洲移住協會가 기획한 남만주 농촌견학여행단에 참여한 일본인의 견학 旅行記는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의 관계나 각각의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여행기에 의하면, 봉천성 撫順市 부근에 위치한 前甸村에는 중국인이 732호(4,102명), 조선인 291호(1,720명)가 雜居하고 있었다. 민족별 인구비율을 보면 중국인이 70.5%, 조선인이 29.5%를 차지하고 있었다. 1900년대 초부터 水田경작이 시작된 이래로 이 촌락에서는 水路整地나 소작료를 둘러싸고 두 민족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는 渾河의 물을 끌어다 수전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渾河의 물 흐름은 범람할 때마다 달라져서 어떻게 이 물을 끌어들이는 것인가를 둘러싸고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sup>54)</sup> 만주사변 직전 발생한 萬寶山事件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만주국」 시기에도 발농사 위주의 중국인 농민과 논농사 위주의 조선인 농민 사이에는 경작방식을 둘러싸고 민족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민족갈등은 당시 남만주 농촌에서 토지를 매개로 형성된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계급관계에서 유발된 측면도 강했다. 아래의 <표-6>은 당시 중국인과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54) 碓氷茂, 1940, 『南滿洲の農村』(東京: 地人書館), 3-7쪽.

〈표-6〉 남만주 중부지역 농촌의 민족별 소유지 규모별 사회구성(1934~1935)

구 분			無所有	5畝미만	5~10상	10~30상	30상 이상	합계	1호당 평균
중국인 촌락	실수	호수 면적	750 -	163 387,362	93 615,656	76 1,157,091	11 508,298	1,093 2,668,407	- 2.44
	%	호수 면적	68.6 -	14.9 14.5	8.5 23.1	7.0 43.4	1.0 19.0	100.0 100.0	- -
조선인 촌락	실수	호수 면적	76 -	19 50.27	2 13.7	1 11.5	- -	98 75.47	- 1.05
	%	호수 면적	77.6 -	19.4 66.6	2.0 18.2	1.0 15.2	- -	100.0 100.0	- -

〈출전〉 滿洲國國務院産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査報告書』(第1~4分冊)(同調査局)의 중국인 촌락과 조선인 촌락의 「土地所有狀況」에서 산출.

〈비고〉 중국인 촌락은 吉林省 敦化縣 三台山屯, 磐石縣 冉家村, 草廟子屯, 榆樹縣 于家燒鍋屯, 第一區 邵家屯, 永吉縣 南荒地, 間島省 延吉縣 第四區村 大屯, 奉天省 梨樹縣 襄家油房屯, 第一區 勤耕村 前繞溝屯, 勤耕村 王家油房屯, 大于家窩堡屯, 第二區 俊富村 條子河屯, 西豐縣 德恩屯, 第三區 永安村 大油屯, 白石村 白石屯, 風化屯, 第五區 幽雅村 幽雅屯, 臥虎屯, 第七區 中陽村 中陽屯, 玉書村 居賢屯, 海龍縣 孫家街屯, 第二區 太平村 楊家街屯, 第五區 連山村 王家子屯, 王家街屯 등 24개이다. 조선인 촌락은 김립성 돈화현 第四區 香水河子屯, 間島省 연길현 陽村屯 B屯, 第四區 楊城村屯 中間部落, 東拓屯 등 4개이다. 다만 영길현의 경우 조사연도는 1934년이다.

〈표-6〉에서 조사된 24개의 중국인 촌락과 4개의 조선인 촌락의 경우 토지가 없는 농가비율이 각각 68.6%, 77.6%로, 조선인 촌락에서의 無土地 농가비율이 중국인 촌락보다 9%정도 더 높았다. 5상 미만의 半農農 비율을 봐도 중국인 촌락비율(14.9%)보다 조선인 촌락비율(19.4%)이 더 높았다. 반면에 30상 이상의 부농의 경우, 중국인 촌락에는 11호가 있었지만, 조선인 촌락에는 전혀 없었다. 10~30상의 중농의 경우, 중국인 촌락에는 76호(7%)나 있었지만 조선인 촌락에는 1호만이 있었다. 조선인 촌락의 규모별 소유지 상황을 보면, 중국인 촌락에 비해 전반적으로 영세한 규모였다. 이것은 1호당 평균 소유지 면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중국인 촌락의 1호당 소유지 면적은 2.44상이었는데 비해, 조선인 촌락의 그것은 1.05상에 불과했다. 물론 조사된 조선인 촌락의 수가 4개에 불과해서 이것을 남만주 중부지역 조선인의 보편적인 소유지 분포상황으로 등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수치를 통해 전반적으로 1930년대 중반 남만주에서의 조선인의 소유지 규모는 중국인에 비해 훨씬 작았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즉 1930년대 남만주 농촌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은 확연하게 달랐던 것이다.

반면에 중국인과 조선인이 섞여 살고 있는 일부 촌락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길림성 永吉縣 大屯촌락의 경우, 보통 수확물의 60% 정도를 소작료로 납부하고 있던 중국인 소작농들은 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이곳의 지주(부재지주 포함)들은 벼농사가 밭농사보다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주로 밭농사를 짓고 있던 중국인보다 벼농사를 짓던 조선인에게 소작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 그 때문에 지주들은 민족의 구분을 떠나 가능하면 조선인에게 소작을 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소작경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중국인 소작농들은 촌락 밖으로 진출하고 있었던 데 반해, 조선인 농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논의 면적도 늘어나면서 중국인 소작농들의 소작지는 점차 증가하고 있던 조선인 농민들에게 잠식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다.<sup>55)</sup> 물론 이것이 만주농촌 전반에서 조선인 농민이 중국인 농민보다 민족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단지 중국인과 조선인이 잡거하고 있던 일부 촌락의 소작관계에서의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했다.

다음에는 남만주 농촌에서의 토지소유 분배상황을 살펴보자. 이것은 부재지주들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글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에서는 부재지주실태가 조사되어 있지 않아서 그 상황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1935년에 조사된 길림성 敦化縣(1개 촌락), 磐石縣(2개 촌락), 榆樹縣(2개 촌락), 榆樹縣(1개 촌락), 間島省 延吉縣(4개 촌락), 奉天省 梨樹縣(4개 촌락), 西豐縣(6개 촌락), 海龍縣(2개 촌락) 등 총 22개 촌락<sup>56)</sup>에서의 부재지주들의 소유지 비율을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다. 즉 그 비율은 돈화현에서 100%, 반석현에서 68.7%, 우수현에서 77.6%, 영길현에서 77.3%, 연길현에서 56.3%, 이수현

55) 善生永助, 1937.5, 「滿鮮人雜居地帶の部落調査」, 『滿鐵調査月報』 第17卷 第5號, 146쪽.

56) 吉林省 敦化縣 香水河子屯, 磐石縣 草廟子屯, 石咀子村屯, 榆樹縣 于開基屯, 邵家屯, 榆樹縣 南荒地, 間島省 延吉縣 陽城村屯 中間部落, 第四區村 大屯, 陽城村下村屯, 陽城村 東拓屯, 奉天省 梨樹縣 前線溝屯, 王家油房屯, 大子家窩堡屯, 條子河屯, 西豐縣 大有屯, 白石屯, 白石村 風化屯, 幽雅屯, 幽雅村 臥虎屯, 中楊屯, 海龍縣 連山村 五家子屯, 頭八石村 등이다.

에서 58%, 서푹현에서 29.3%, 해룡현에서 33.4%에 달했다. 돈화현 香水河子屯에서는 吉林省에 살면서 삼림 벌채업을 하고 있던 일본인 한 명이 이 촌락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간도성 연길현 陽城村 東拓屯에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閩島支店이 이 촌락 전체 토지의 86.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1938년도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의 부재지주 실태조사에 의하면, 사가자둔에는 원래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었지만, 치안상황이나 기타 요인으로 부근의 扶餘縣城으로 도피해버려 이 둔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소작인이나 영세한 토지소유자들만이 남겨져 있었다. 그 결과 本屯 거주자 13명의 소유지 면적은 59晌으로 사가자둔 전체 소유지 341상의 17.3%에 불과했고, 他屯 거주 자작농 6명의 소유지 면적은 20상으로 전체의 토지의 5.9%였으며, 순수 부재지주 16명의 소유지 면적은 262상으로, 본둔 전체면적의 76.8%를 차지하고 있었다.<sup>57)</sup>

이와 같은 심각한 토지소유의 불균형 문제 혹은 도회지에 거주한 부재지주들의 과도한 토지집적 문제는 극소수 특권층에게 부여된 토지불하라는 ‘개척지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농후했다. 그리고 ‘치안불안’ 등의 요인으로 촌락의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대토지 소유자들이 縣城으로 도피하면서<sup>58)</sup> 촌락민은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점은 일본의 만주침략(만주사변)과 괴뢰 「만주국」의 수립이라는, 만주 농촌에 파급된 ‘식민지적 요소’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특히 香水河子屯과 東拓屯의 사례는, 식민지가 된 만주농촌에서 일본인이나 일본 식민당국이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했는지를 짐작케 해주는 동시에, 남만주 농촌이 지닌 ‘식민지적 요소’를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57)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67쪽, 77쪽.

58)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199쪽.

〈표-7〉 남만주 24개 촌락의 소유지 규모별 不在地主의 거주지 및 직업실태(1935)

소유지 규모별	거주지별 호수					직업별 호수								
	농촌	縣城	省市	不明	小計	地主	상업	임업	공업	관리	교원	기관	기타	소계
10响 미만	2	-	-	-	2	1	-	-	-	-	-	-	1	2
10~20상	4	5	-	1	10	7	1	-	1	-	-	-	1	10
20~30상	3	5	-	-	8	3	1	-	-	2	2	-	-	8
30~40상	2	3	-	-	5	3	2	-	-	-	-	-	-	5
40~50상	-	4	-	-	4	2	2	-	-	-	-	-	-	4
50~100상	7	13	1	-	21	15	2	1	-	1	-	1	1	21
100상 이상	1	1	-	-	2	2	2	-	-	-	-	-	-	2
합계	실수 19	31	1	1	52	33	8	1	1	3	2	1	3	52
	% 36.6	59.6	1.9	1.9	100.0	63.5	15.4	1.9	1.9	5.8	3.8	1.9	5.8	100.0

〈출전〉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1936, 『農村實態調查報告書』(戶別調查之部)(第二分冊, 第三分冊, 第四分冊)에서 산출. 부재지주들을 조사한 촌락들을 열거하면, 吉林省 敦化縣의 香水河子屯, 磐石縣의 草廟子屯, 石咀子村屯, 榆樹縣의 于開基屯, 邵家屯, 永吉縣의 南荒地, 閩島省 延吉縣의 陽城村屯 中間部落, 第四區村 大屯, 陽城村下村屯, 陽城村 東拓屯, 奉天省 梨樹縣의 前線溝屯, 王家油房屯, 大于家窩堡屯, 條子河屯, 西豊縣의 大有屯, 白石屯, 白石村 風化屯, 幽雅屯, 幽雅村 臥虎屯, 中楊屯, 海龍縣의 連山村 五家子屯, 頭八石村 등이다. 다만 吉林省 永吉縣의 경우 鈴木小兵衛, 1935.10, 「中部滿洲於農民分化」, 『滿鐵調查月報』第15卷 第10號, 31쪽에서 인용. 〈비고〉 여기에서는 부재지주들의 소유지 가운데 廢耕地와 기타 토지를 제외한 소유지만을 산출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만주국」 시기에 조사된 대다수의 농촌실태 조사보고서에서는 부재지주나 在地지주, 부농, 雇農 등이 어느 민족인지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관계로 얽혀진 농촌의 사회구성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아마도 부재지주들의 토지소유실태, 해당 촌락 내 농민들과의 토지 및 금전적인 대차관계나 역할, 부재지주의 실체(사회적 지위, 직업, 민족)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면, 남만주 농촌에서의 사회구성의 다양성과 지역적 특성(주로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을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광범위한 조사결과는 아니지만, 상술한 22개 촌락에서의 부재지주들의 거주지 및 직업실태만을 가지고 보면(〈표-7〉 참조), 농촌에 살고 있던 부재지주가 36.6%, 縣城에 거주한 부재지주가 59.6%로, 많은 토지를 지닌 부재지주일수록 대체로 도회지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부재지주들의 직업을 보면, 地代(소작료) 수취를 통해 살아가는 寄生的 부재지주가 63.5%, 상업종사자가 15.4%, 관리가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8) 南滿洲 농촌의 소유지 면적별 사회구성(1935, 1938) (단위: 戶, 响, %)

조사 연도	部落 명칭	戶數	無土地	1响미만	1~3상	3~5상	5~10상	10~20상	20~30상	30~50상	50~100상	100상 이상	1호당 평균
1935	海城縣 欄河山屯	55	24	9	13	1	4	3	1	-	-	-	1.80
	西豊縣 忠信屯	51	36	1	3	-	4	5	1	1	-	-	3.02
	凌源縣 十五里堡	54	15	11	17	8	3	-	-	-	-	-	1.27
	伊通縣 達子營屯	79	51	2	7	2	6	4	4	1	1	1	4.66
	합계	호수 (%) 총면적 (%)	239 (100.0) 809.35 (100.0)	126 (52.7) -	23 (9.6) 13.8 (1.7)	40 (16.7) 65.69 (8.1)	11 (4.6) 43.44 (5.4)	17 (7.1) 115.39 (14.3)	12 (5.0) 158.25 (19.6)	6 (2.5) 130.88 (16.2)	2 (0.8) 66.4 (8.2)	1 (0.4) 63.2 (7.8)	1 (0.4) 152.3 (18.8)
1938	吉林省扶餘縣四家子屯	호수 (%)	56 (100.0)	38(2) (67.9)	10 (17.8)	4 (7.1)	3 (5.4)	1 (1.8)	-	-	-	-	1.16
	扶餘縣 전체	호수 (%)	47,251 (100.0)			31,704 (67.1)	8,722 (18.5)			4,951 (10.5)		1,874 (4.0)	

〈출전〉 欄河山屯·忠信屯·十五里堡·達子營屯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88-91쪽, 「No.1,2,3,4 所有面積別土地所有狀況」; 1호당 평균 소유지 면적은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00쪽, 「20 部落別耕地所有面積」에서;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과 부여현 전체는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84쪽, 88쪽에서 산출. 〈비고〉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의 경우, 조사된 토지소유규모 구간과 조사연도가 뒷부분 4개 촌락과 달라서 합치지 않고 별도로 제시했다. 사가자屯에서는 소유지 규모가 3상 미만은 極貧農群, 3~10상은 貧農群, 10~50상은 中農群, 50상 이상은 富農群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1响은 약 1 에이커(acre)에 해당된다. 1에이커는 약 1.244평이다.<sup>59)</sup> 四家子屯의 ( ) 안의 숫자는 雜業者群의 호수와 %를 별도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는 부재지주를 제외하고 이 글에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향촌사회조사 4개 촌락에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의 소유지를 평균치로 환산해 계층별로 살펴보면(〈표-8〉 참조), 1935년 조사당시 전체호수 239호 가운데 토지가 전혀 없는 호수는 절반이 넘는 126호(52.7%)에 달했는데, 특히 충신屯에서는 그 비중이 2/3를 훨씬 넘는 70.6%에, 달자영屯에서는 64.6%에 달했다.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에서도 토지가 없는 雇農群의 호수(38호, 이 중 2호는 雜業者)는 전체의 67.9%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표-8〉 참조)

더욱이 토지 無소유층과 별반 다르지 않은 3响 미만의 토지를 지닌 半雇農(전체의 26.3%)까지를 극빈층의 범주에 귀속시킨다면 약 80%에 달했다. 1938년도 조사에 의하면, 四家子屯에서도 極貧農群의 비중이 17.8%로, 雇農群과 합치면 78.5%에 달했다. 조사대상을 扶餘縣 전체로 확대한 결과, 토지 무소유자를 포함한 5상 미만 (반)고농군의 호수는 3만 1,704호로서 전체호수 4만 7,251호 가운데 2/3인 67.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남만주 농

59) 韓相準·趙淳卓 監修, 1977, 『世界單位辭典』(서울: 東南書館), 1198쪽.

촌에서 극빈층의 비중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반면에 遼子營屯에 거주한 50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大農 2호(4개 촌락 전체 호수의 0.8%)가 전체 소유지의 26.6%(215.5상)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여현 전체에서도 50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농은 1,874호로 전체호수의 4%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국 1930년대 중반 남만주 농촌의 토지 無소유자 비중은 비록 북만주 농촌의 토지 無소유자 비중(1934년도 63.2%, 1935~36년도 72.1%)<sup>60)</sup> 정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남만주 농촌에서도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층 농민의 실태를 살펴보면, 貧農에 해당하는 3~10상 규모의 농민층은 호수에서 11.7%를, 소유지 면적에서 19.7%(158.83상)를, 중농에 해당하는 10~50상 규모의 농민층은 호수에서 8.4%를, 소유지 면적에서 43.9%(355.53상)를 차지하고 있었다. 단 두 농가가 전체 소유지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촌락의 1호당 평균 소유지 면적은 1.27~4.66상 정도였는데, 달자영둔의 100상 이상 大農 1호의 소유지 면적은 152.3상<sup>61)</sup>으로 1호당 평균 소유지 면적의 32~120배나 많았다. 당시 남만주 농촌에서는 재산이 남자 자식들만을 대상으로 均分·相續되었고, 딸들은 상속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재산이 균분 상속되었다. 조상에 대한 祭祀費에 충당하기 위해 ‘祭田’이라 불린 특정한 토지가 마련되었다. 이 제전은 상속자들이 공유했으며 매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sup>62)</sup> 남만주 농촌에서 재산의 균분상속이 보편화되어서인지 조사대상 촌락에서는 경지면적 대비 과잉인구 상황과 아울러 分家制度<sup>63)</sup>에 의

60)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 『만주연구』 제24집, 145쪽. 1934년 수치는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土地關係并に慣行篇--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8)(新京: 同調査局), 3쪽;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査報告書 康徳元年度戶別調査之部』(新京: 同調査局), 「第6表 土地關係表」에서; 1935~1936년 수치는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土地關係并に慣行篇(補遺)--齊北·濱北兩沿線地方十六縣』(新京: 同調査局資料科), 6쪽, 「第一表 土地所有配分關係」에서 추출·작성.

61) 『鄉村社會調査報告書』(統計編), 「No.4 所有面積別土地所有狀況」, 91쪽.

62) 『鄉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35쪽, 275쪽, 328쪽.

63) 남만주 농촌의 상속제도 특징은 충신둔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鄉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147-148쪽).

해 一家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지가 분할되어 극단적인 토지의 零細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sup>64)</sup>

그런데 상술한 4개 촌락의 소유지 면적별 농촌사회구성을 남만주 농촌의 사회구성으로 간주하기에는 조사대상이 너무 적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지니려면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써 奉天省 法庫縣의 경우를 보면, 전체 조사호수 4만 7,978호 가운데 토지가 없는 농가는 전체의 약 70%(69.3%)인 3만 3,252호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 3天地 미만의 半雇農 4,325호(9%)까지 합칠 경우 토지 무소유자 비중은 68.3%에 달했다. 빈농층인 3~10천지 소유 농가는 13.3%(6,389호), 10~20천지 농가는 5.3%(2,519호)였다. 중농층에 속하는 20~30천지 소유계층은 2%(942호), 30~50천지 소유농가는 0.9%(415호)였다. 부농층에 속하는 50~100천지 농가는 0.2%(105호), 150천지 이상을 소유한 농가는 0.03%인 13호였다.<sup>65)</sup> 이를 통해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과 마찬가지로 토지 무소유 계층의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9〉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경영규모별 주거실태(1935)

경영규모별	호수	世代 員數	가옥 間數	炕數	1호당 세대원수	1호당 가옥間數	1炕當 세대원수
無경작자	80	372	147.5	133.0	4.7	1.84	2.8
1响 미만	41	195	109.5	69.0	4.8	2.67	2.8
1~3상	44	277	131.5	90.0	6.3	2.99	3.1
3~5상	19	129	64.0	50.0	6.8	3.37	2.6
5~10상	21	181	74.0	52.0	8.6	3.52	3.5
10~20상	21	207	64.5	61.0	9.9	3.07	3.4
20~30상	6	108	47.5	36.0	18.0	7.92	3.0
30~50상	5	110	30.0	30.0	22.0	6.00	3.7
50~100상	2	66	27.0	30.0	33.0	13.5	2.2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58-159쪽, 「No.1.2.3.4 經營面積別狀況」에서 합산·산출.

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9쪽, 「部落の構成」.

65)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德三年度 縣技士見習生 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料 41, 奉天省 法庫縣 第二區五臺子村 團山子屯)(新京: 同調査局), 4쪽에서 산출.

남만주 농촌의 경영규모별 住居상황을 살펴보면(표-9) 참조, 1935년 조사된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의 경우 경영규모가 크고 부양능력이 좋을수록 1호당 世代員數는 많았다. 가령 50~100상 大農의 세대원수는 33명으로 1~3상 半雇農의 세대원수(6.3명)보다 5.2배, 3~5상 빈농의 세대원수(6.8명)보다 4.9배나 많았다. 1호당 가옥 間數도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넓었다. 가령 50~100상 대농의 가옥 간수는 13.5間으로 1~3상 半雇農의 가옥 간수(2.99間)보다 4.5배, 3~5상 빈농의 가옥 간수(3.37間)보다 4배나 컸다. 다만 1炕당 세대원수는 경영규모가 큰 농가들의 세대원수가 워낙 많다보니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아마도 같은 炕(炕)數라 해도 가옥의 공간이 넓으면 炕(炕)의 넓이도 컸을 것이므로, 경영규모가 큰 농가의 세대원수가 많았다 해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을 것이다.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에서도 가옥의 有無에 따라 집을 빌려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령 난하산둔과 십오리보의 경우 自家(住家)에 대한 借家 비율은 각각 29.2%, 4.8%로 낮았지만, 충신둔과 달자영둔의 自家에 대한 借家 비율은 70.9%, 84.8%로 매우 높았다.<sup>66)</sup> 이것은 이들 마을에서 가옥을 소유하지 못한 농가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賃借 가옥의 종류를 보면, 난하산둔에서는 平房(지붕이 평평한 집)이 16채, 草房(초가집)이 4채, 瓦房(기와집)이 1채로 평방이 대부분이었고, 忠信屯에서는 초방이 34채, 평방이 1채로 초방 일색이었다. 십오리보에서는 초방이 2채, 외방이 2채, 평방이 1채였고, 달자영둔에서는 초방이 53채, 평방이 1채로 임차 가옥은 초방 일색이었다. 그런데 이들 촌락에서는 차가에 따른 임차료가 면제된 경우들이 있었다. 가령 난하산둔에서는 무덤을 돌보는 조건으로 2건, 本屯會務所에서 無賃借用한 1건에 대해서, 충신둔에서는 소작농에게 소작지의 附加物로 제공된 12건, 집주인의 친척인 경우 2건에 대해서, 십오리보에서는 집주인과 친구인 4건과 廟房(祠堂에 딸린 집) 1건에 대해서, 達子營屯에서는 소작농에게 소작지의 附加物로 제공된 21건에 대해서 借家에 따른 임차료가 면제되었다.<sup>67)</sup>

66)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72쪽, 「40 部落別借家狀況」.

67)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179-180쪽, 「No.1,2,3,4借家狀況」.

1935년 조사당시 남만주 농촌에서는 많은 경우 소작농에게 소작지의 부가물로 혹은 집주인과의 친척·친구인 경우 가옥을 무료로 임차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표-10〉 향촌사회조사 4개 촌락의 경영규모별 1호당 負債用途 현황(1935) (단위: 戶, 圓)

경영 규모별	호수	토지 구입	大家畜 구입	기타영 농자금	가옥 건축	상공업 경영	생활비	冠婚費	葬祭費	기타	합계
無경작자	18	-	-	-	57.14	66.67	91.34	150.00	14.29	28.57	408.01
1响 미만	11	1,030.00	-	-	-	-	14.90	-	-	500.00	1,522.90
1~3상	14	-	-	30.00	-	0.83	13.85	-	-	7.60	52.28
3~5상	3	-	-	-	-	-	191.56	-	50.00	-	241.56
5~10상	9	12.50	-	31.00	-	-	25.00	-	11.25	-	79.75
10~20상	8	-	-	38.33	-	-	42.50	-	-	-	80.83
20~30상	5	433.33	20.00	36.67	-	-	120.00	-	-	206.67	816.67
30~50상	3	-	-	25.00	-	-	-	550.00	300.00	320.00	1,195.00
50~100상	1	-	-	-	800.00	-	-	300.00	-	1,195.00	2,295.00
합 계	72	1,475.83 (22.1)	20.00 (0.3)	161.00 (2.4)	857.14 (12.8)	67.50 (1.0)	499.15 (7.5)	1,000.00 (14.9)	375.54 (5.6)	2,257.84 (33.7)	6,692.00 (100.00)

〈출전〉 『郷村社會調査報告書』(統計編), 258-260쪽, 「No.1,2,3,4 經營面積別負債使途狀況」에서 합산·산출.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에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72호의 경영규모별 1호당 負債 사용현황을 살펴보면(〈표-10〉 참조), 기타 부채용도에 사용된 금액(33.7%)을 제외할 경우, 토지 구입비가 22.1%로 가장 많았고, 冠婚費(14.9%) > 가옥 건축비(12.8%) > 생활비(7.5%) > 葬祭費(5.6%) > 기타 영농자금(2.4%) > 상공업 경영비(1.0%) > 大家畜(말, 소, 노새, 당나귀) 구입비(0.3%)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호당 경영규모별 부채의 용도별 특징으로서, 토지 구입비 비중이 높은 것은 충신둔의 지주 겸 자작농 1호가 토지구입 비용으로 1,030원의 부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sup>68)</sup> 또한 부채용도 항목에 商工業 경영비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충신둔의 지주 1호가 상공업 경영비용으로 200원의 부채를 사용했기 때문인데, 이 지주는 토지의 대차를 통한 소작료 수입 이외에 상공업도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無경작 자층의 부채용도 항목 중에서 冠婚費와 葬祭費에 상당한 액수가 높게 나온 것은, 충신둔에 거주한 지주 겸 자소작 농가 1호가 冠婚費로 550원, 葬祭費

68) 『郷村社會調査報告書』(統計編), 266쪽, 「No.2 負債使途狀況」.

로 300원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69)</sup> 30상 미만까지의 농업노동자, 반고농, 빈농, 중농 하층 등의 농민층에서는 생활비의 일부를 부채에 의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5~50상의 농가층에서는 기타 영농자금의 일부를 부채로 충당하고 있었다. 30~100상의 대농층에서는 관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끌어다 사용하고 있었다. 부여현 사가자둔의 경우, 지주는 冠婚費로 400~500원을, 葬儀費로 520~620원을 지출하고 있었는데 비해, 소작인은 각각 350~360원, 20~3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sup>70)</sup> 관혼비 지출에서는 지주나 소작인의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장의비 지출에서는 지주 측이 소작인 측보다 21~26배 많았다. 생활형편이 좋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면서 전통적인 관례를 중시하는 지주들은 葬儀비용에도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운 소작인들은 자식들의 현재와 미래가 걸려 있는 관혼 문제에서는 무리를 해서 지출을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부모 등의 사망 등 죽음과 더불어 과거사가 되어버리는 장의 문제에서는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었던 셈이다.

부채의 이율은 월 1~3分, 연 1.5~5割이었다. 특히 달자영둔에서는 부채의 이율이 연 5할인 경우가 2건, 4할인 경우가 18건, 3할인 경우가 9건, 2.5할인 경우가 1건, 무이자 6건일 정도로 다른 촌락에 비해 높았다. 抵當 물건은 택지, 가옥, 토지, 토지문서(地照), 의복 등이었고, 부채의 계약(상환)기간은 1~18개월 혹은 무기한이었는데, 난하산둔과 충신둔에서는 12개월인 경우가 많았지만, 달자영둔에서는 대부분이 무기한이었다. 채권자(貸主)들 중에는 해당 촌락에 거주한 사람들보다는 해당 촌락이 소재한 縣이나 屯外(타촌락)에 거주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sup>71)</sup> 貸主들의 상당수는 해당 촌락에 거주하지 않는 不在地主거나 高利貸業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달자영둔의 사례를 통해 경영규모별로 1호당 貸借상황을 살펴보면, 83상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던 지주 겸 자작농(大農)은 伊通縣 거주자로부터 가옥 16間을 저당 잡히고 1,575원의 負債를, 45상을 경작한 지주 겸 자소작농(대

69) 『鄕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66-267쪽, 「No.2 負債使途狀況」.

70)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115쪽.

71) 『鄕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49-250쪽, 「No.1,2,3,4 負債契約」.

농)은 70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고, 25상의 토지를 경작한 지주 겸 자소작농(중농)은 1,003원을 貸付하고 있었지만 1,080원의 부채도 안고 있었다. 3.7상을 경작한 자작농은 150원의 부채를, 45상을 소작하고 있던 소작농은 40원의 부채를, 또 다른 소작농(중농) 3호는 1호당 60원씩의 대부금과 110원씩의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소작 겸 고농(半雇農) 2호는 5원씩의 부채를, 雇農 5호는 1호당 46원씩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sup>72)</sup> 이 촌락에서의 貸借上의 특징은, 대농층에서 많은 부채를 짊어진 반면에 중농층에서는 대부금과 부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고, 반고농과 고농층에서는 상당수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는 데 있다.

토지의 入典<sup>73)</sup>(抵當 잡음) 상황을 보면, 난하산둔에서는 입전 호수가 6호, 입전 면적이 4상이었고, 西豊縣 忠信屯에서는 각각 4호, 19.75상, 십오리보에서는 각각 14호, 10.14상으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타인의 토지를 저당 잡은 사람들은 지주, 지주 겸 自小作農, 자작농, 자소작농이었다. 반대로 토지의 出典이나 出押(저당 잡힘) 상황을 보면, 충신둔에서는 각각 2호, 2.2상, 십오리보에서는 각각 3호, 2.9상으로 입전 규모보다는 훨씬 적었다. 이 두 촌락에서 자신의 토지를 저당 잡힌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작농들이었고 일부가 자소작농, 소작농 등이었다.<sup>74)</sup> 상술한 조사대상 촌락들에서는 가옥에 대한 入出典도 행해지고 있었다. 난하산둔에서는 平房과 草房의 入典 건수가 4건, 평방과 초방의 출전 건수가 3건이었고, 충신둔에서는 초방의 입전과 출전이 각각 1건이었다.<sup>75)</sup> 1938년 吉林省 扶餘縣 四家子屯의 계층별 부채총액을 살펴보면, 中農群은 866.87원, 貧農群은 15.25원, 極貧農群은 21.90원, 雇農群은 115.54원이었다. 당시 토지 등의 담보물이 없던 雇農群

72)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243쪽, 「No.4 經營形態別貸借狀況」 및 250쪽, 「No.4 負債契約」.

73) 典(當이라고도 불림)이란 타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전을 받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使用收益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入典'(入押)이라 한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자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허락하는 것을 '出典'(出押)이라 한다. 또한 典價를 지급하고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回贖'(歸贖, 取贖, 抽贖)이라 한다.

7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土地出押狀況」, 273쪽.

75)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部落別家屋入出典狀況」, 275쪽.

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채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다.<sup>76)</sup>

〈표-11〉 4개 촌락의 1호당 경영규모별 租稅公課 現金지출 상황(1935)

경영규모별	호수	토지세 납부액					農産物稅	家畜稅	합계
		國稅	縣稅	村稅	기타	계			
無經營者	18	-	-	0.63	-	0.63	1.46	-	2.09
1响 미만	11	2.04	0.3	1.39	-	3.37	0.38	-	3.75
1~3상	14	2.08	3.56	4.15	-	9.97	6.10	0.31	16.38
3~5상	3	2.50	3.23	-	5.42	11.15	4.15	4.20	19.50
5~10상	9	15.56	25.27	36.79	7.75	85.37	3.74	4.98	94.09
10~20상	8	8.50	21.52	43.46	3.00	76.48	4.02	51.24	131.74
20~30상	5	15.73	32.27	4.66	8.21	60.87	5.79	3.03	69.69
30~50상	3	2.46	4.13	21.25	19.50	47.34	0.90	19.70	67.94
50~100상	1	-	-	-	-	-	-	-	-
합 계	72	48.87 (12.1)	90.28 (22.3)	112.33 (27.7)	43.88 (10.8)	295.18 (72.9)	26.54 (6.5)	83.46 (20.6)	405.18 (100.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440-441쪽, 「No.1,2,3,4 經營面積別租稅公課現金支出(一戶當)」.

〈비고〉 이 통계표에서는 50~100상의 대농 1호에 대한 조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1935년에 조사된 4개 촌락의 경영규모별 1호당 租稅公課 현금지출 현황을 보면(〈표-11〉 참조), 토지세가 7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家畜稅가 20.6%, 農産物稅가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토지세의 경우 村稅가 2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들에는 村公所費, 학교비<sup>77)</sup>, 區農會費, 廟費, 村董(촌 관리인) 伙食費, 看靑費<sup>78)</sup>, 招待費(관할 경찰, 관리 등에 대한 접대비), 雜費 등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縣稅가 22.3%, 國稅가 12.1%, 기타 세금이 10.8%를 차지하고 있었다. 말단 기관의 세금이 가장 많았던 셈이다. 縣城에 가깝게 위치해 치안이 비교적 양호했던 난하산둔에서는 自衛團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屯民들이 自衛團費나 保甲費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1933년까지는 둔민들이 村會費 이외에 門牌費를 분담했는데, 1935년부터 철폐되어 촌회비만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것은 촌

76)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73쪽.

77) 이 비용은 주로 교사 1명의 봉급에 해당했는데, 이를 위해 남자 생도에게는 매년 3원, 여자 생도에게는 매년 2원의 수업료가 징수되었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51쪽).

78) 음력 6월부터 9월까지 뭍을 감시하기 위해 채용한 고용인에게 지급한 手當을 의미한다(『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18쪽).

락의 치안 여부에 따라 촌락민들의 부담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촌회비는 촌동이 직접 호별로 징수했기 때문에 체납의 사례는 거의 없었다. 둔민들은 촌회비 이외에 縣도로나 村 도로 수리를 위해 賦役형태로 노동력 제공의 의무도 짊어지고 있었다.<sup>79)</sup> 田賦(地稅), 畝捐(地捐)은 租戶(소작농)가 부담하지 않고 租主(地主)가 부담했지만, 村費(‘會上錢’이라 불림)나 토지의 수리비는 경작자인 조호가 부담했다. 村費는 경지 1畝당 1년에 5角을 징수했는데, 경작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소작지에 대해서는 소작인이 부담했다.<sup>80)</sup> 부여현에서는 지주가 地稅, 地捐, 義倉費(1畝당 20전), 保甲費(1畝당 54전)를 부담했고, 소작인은 경작면적에 따라 屯費를 부담했는데 그 부담액은 일정하지 않았다.<sup>81)</sup> 1935년 조사당시 남만주에서는 상술한 직접세 이외에 간접세로서 밀가루에 부과된 麥粉統稅 이외에, 鹽稅, 酒稅, 酒公賣費 그리고 煙草에 부과된 菸稅公賣費 등이 있었는데, 총 지출에서 이들 간접세가 차지한 비율은 농가에 따라 0.16~5.72%에 달했다.<sup>82)</sup>

원칙적으로 보면 경영규모가 클수록 세금 부담액이 컸어야 했지만, 특이하게도 향촌사회조사 대상 4개 촌락이 납부한 토지세의 경우, 5~10상의 빈농 > 10~20상의 중농 하층 > 20~30상의 중농 상층 > 30~50상의 대농(부농) 순으로 많이 부담했다. 조세부담의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난하산둔의 경우 총수입에서 조세공과금이 차지한 비율은 경영규모에 따라 1.77~14.2%였다. 또한 田賦와 畝捐이 토지수익에서 차지한 비율은 농가별로 0.24~5.31%로서 높지는 않았다.<sup>83)</sup> 가축세의 경우에는 10~20상의 중농 하층과 30~50상의 대농(부농)층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들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축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 「만주국」에서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농민들이 부여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아니라 상당액의 체납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것은

79)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이하에서는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이라 약칭함], 50-51쪽.

80)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20-21쪽, 30쪽, 43쪽.

81)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261쪽.

82)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58-61쪽.

83)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47-49쪽.

1938년 10월말 扶餘縣에서의 地稅와 地捐의 체납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즉 부여현에서의 지세와 지연의 체납비율이 27.8%, 28.2%였다.<sup>84)</sup>

〈표-12〉 奉天省 西豊縣 忠信屯의 경영형태별 생활비 현금지출 비율현황(1935)

경영형태별	住居費	食費	被服費	光熱費	什器費	교육비	嗜好費	娛樂費	잡비	합계
地主	3.6%	31.2	8.5	7.1	0.3	30.3	2.7	-	16.2	100.0
地主自作	1.8%	25.9	28.5	6.2	1.5	2.6	2.4	-	31.1	100.0
地主自小作	0.5%	42.1	13.4	2.1	1.4	2.1	5.1	-	33.2	100.0
自作	17.6%	22.8	22.3	2.4	0.9	19.3	3.2	-	11.6	100.0
小作	2.7%	41.8	23.6	3.0	1.6	4.8	6.6	0.3	15.7	100.0
雇農	9.2%	40.3	18.3	19.5	1.3	0.1	2.2	-	9.1	100.0
기타	7.3%	30.7	6.0	17.7	0.4	0.1	0.6	-	37.2	100.0
합계	4.6%	32.4	17.5	6.8	1.0	10.0	3.3	0.1	24.3	100.0

〈출전〉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89쪽, 「No.2 經營形態別生活費現金支出要約表(比例%)」.

그렇다면 남만주 농촌의 농민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그들의 생활비 지출현황에서 잘 드러난다. 가령 충신둔의 경영형태별 생활비 현금지출 현황을 보면(〈표-12〉 참조), 전반적으로 1935년 조사당시 이 촌락에서는 식비(32.4%) > 雜費(제사비, 慶弔費, 家事人 고용비, 약값, 이발비, 화장품값, 통신비, 교통비 등, 24.3%) > 被服費(17.5%) > 교육비(10.0%) > 光熱費(석유, 땔감 등, 6.8%) > 주거비(토지가옥 임대료, 수리비 등, 4.6%) > 嗜好費(술, 담배, 차 등, 3.3%) > 什器費(그릇 등, 1.0%) > 娛樂費(聽戲, 玩具 등, 0.1%) 순으로 현금이 지출되고 있었다. 경영형태별로 생활비 지출항목 현황을 보면, 생활이 곤란한 소작농과 고농 계층에서는 식비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고농층에서는 주거비와 광열비 등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에 상대적으로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들로서 난하산둔의 고농층에서는 생활비 현금지출에서 식비가 80%를, 십오리보의 소작 겸 雇農과 고농층에서는 식비 비중이 각각 87.7%, 80%를, 달자영둔의 소작 겸 고농과 고농층에서는 식비 비중이 각각 74.4%, 68.1%를 차지하고 있었다.<sup>85)</sup>

84)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257쪽.

85)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89-390쪽, 「No.1,3,4 經營形態別生活費現金支出要約表(比例%)」.

농원현 십오리보에서는 下痢(이질, 설사), 복통, 두통, 감기에 대해서는 아편을 靈藥으로 믿고 있어서 自家에서 생산한 아편을 치료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궁핍한 이 촌락에서는 아편을 직접 흡입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여겨 주로 아편을 불에 익혀 그 즙을 주사기로 흡입한 후 주사하는 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편의 주사비용은 직접 흡입 비용보다도 1/5이 싸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촌락에서는 23명의 거주민이 아편을 수시로 주사함으로써 중독상태에 있었다.<sup>86)</sup> 이러한 실태는 일본 식민당국이 아편재배와 아편흡입을 조장함으로써 수입을 창출해 재정 및 전쟁비용 부족분에 충당하려고 했던 식민지정책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sup>87)</sup>

1938년에 조사된 길림성 扶餘縣 四家子屯의 계층별 1호당 생활비 중 현금 지출 액수를 보면, 중농군이 295.30圓, 빈농군이 155.66圓, 극빈농군이 165.51圓, 高農軍(定雇, 1년간 고정적으로 고용된 농업노동자)이 168.80圓, 不確雇(月工처럼 고용기간이 단기적인 농업노동자)가 208.59圓, 不定雇(日工처럼 고용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농업노동자)가 117.65圓이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고농군의 현금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해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보니 현금으로 식량을 구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88)</sup> 이들 최극 빈층에서는 동물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비의 대부분을 단순히 먹는 곳에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반면에 지주 겸 자작농, 지주 겸 자소작농, 자작농 등 비교적 상층의 농가에서는 품위 유지 및 문화생활 향유와 관련성이 높은 제사비, 慶弔費, 家事人 고용비, 약값, 이발(머용)비, 화장품값, 통신비, 교통비 등의 雜費에 상대적으로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다.<sup>89)</sup> 사가 자들의 고농층 중에는 풀베기나 말똥을 주워 이것들을 판매해서 수입을 꾀하거나 도회지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사람들

86) 『鄉村社會調查報告書』(記述編), 349쪽.

87) 박강, 1998, 「日本の 中國占領地 阿片政策의 諸樣相: 中日戰爭期를 중심으로」, 부산외대 편, 『外大論叢』 제18권 제3호; 박강, 2010, 『아편과 20세기 중국』(서울: 선인).

88)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72쪽.

89)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400-403쪽, 「No.1,2,3,4 經營形態別生活費現金支出(比例%)」.

이 없었다. 이들은 경제적 고통 속에 방황하고 있었을 뿐이다.<sup>90)</sup>

충신둔에서 생활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주나 자작농 계층에서는 교육비에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고, 달자영둔에서도 지주층이 생활비 현금의 21.5%를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밀바닥 삶을 영위하고 있던 고농층에서는 생활자금을 교육비에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례로 충신둔에서는 고농층이 교육비에 0.1%를 지출하고 있었고, 난하산둔, 십오리보, 달자영둔의 고농들은 아예 교육비에 단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있었다.<sup>91)</sup> 이들은 자녀 교육비에 충당할 만큼의 생활 여유자금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남만주 농촌에서 고농층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 인해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 IV. 결론

청조 및 중화민국 시기 만주가 개방되면서 토지의 불하는 극소수 특권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토지의 개간과 경작은 산동을 비롯한 화북 출신 이민자들의 고용을 통해 행해졌다. 그리고 만주의 촌락들은 토지를 선점한 극소수 특권층 대지주와 招墾·開墾에 응하거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關內에서 밀려들어온 한족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 결과 만주촌락들의 토지소유관계는 극심한 불균등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향촌사회조사 4개 촌락의 토지 무소유자 비중이 52.7%였고, 3晌미만의 半雇農層까지 합한 비중이 80%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남만주 촌락 역시 만주농촌의 보편적인 토지 불균등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개척지’로서의 남만주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만주 촌락에서는

90) 『扶餘縣四家子屯 農村實態調查報告書』, 199쪽.

91)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4, 『鄉村社會調查報告書』(統計編), 389-390쪽, 「No.1,3,4 經營形態別生活費現金支出要約表(比例%)」.

과잉인구와 分家制度에 의해 극단적인 토지의 零細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분명 이것은 토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상술한 남만주의 조사대상 4개 촌락의 농민들은 생계곤란, 혼인, 돈벌이 찾기 등의 원인으로 자주 이동하고 있었고, 특히 조선인들은 주로 생계곤란 문제로 만주와 조선 사이를 流動하고 있었다. 촌락민들의 약 2/3는 無業·無職者였고 농업종사자 비중은 약 30% 정도였다. 촌락민들의 학력은 낮았고 미취학률이 높았으며 문맹률이 절반을 넘고 있었다.

중국인 촌락에는 대부분 公會와 더불어 村長, 村副, 村董, 學董, 屯長, 자위 단장, 牌長 등의 집행부가 조직되어 자치가 행해지고 있었고, 종교적 대상으로 關帝廟, 龍王廟, 三官廟, 藥王廟, 土地廟 등이 만들어져서 의례나 종교활동 등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촌락민들에 대한 통제감시가 행해졌다. 몽골인 촌락에서도 한족 정부의 견제 속에 나름대로의 자치를 행하고 있었다. 「만주국」 식민당국에서는 종교를 통제·활용하거나 宣撫班을 조직해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었다. 소학교에서는 修身과 일어 과목이 일본의 식민 통치이념을 주입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중시되고 있었다. 특히 일어난 「만주국」의 국어로 채택되어 일어 사용이 강제되고 있었다.

발농사 위주의 중국인 지주·농민과 논농사 위주의 조선인 소작인·농민 사이에는 경작방식이나 경제관계를 둘러싸고 민족적·계급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다. 남만주 농촌에서는 민족별 소유지 면적에서 잘 드러나듯이, 중국인의 위상이 조선인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각 촌락에서는 부재지주들의 소유지 면적 비중이 매우 높았고 일부 촌락에서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식민기관 포함) 부재지주들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도 했다. 남만주 촌락에서의 부재지주 비율이 높은 것은 도회지에 거주한 극소수 특권층에 대한 토지불하와 더불어 만주사변 및 항일무장투쟁으로 인한 치안불안이었다. 이는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만주 촌락 농민들의 부채상황을 보면, 大農層에서는 冠婚費나 葬儀費를 부채로 충당하고 있었고, 중하층에서는 생활비의 일부를 부채에 의존할 정도로 생계곤란에 시달리고 있었다.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는 부채

를 깊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토지나 가옥의 入出典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등의 담보물이 없던 雇農群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돈을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채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租稅公課 방면에서의 '식민지적 요소'로서 대부분의 촌락에서는 자위단비나 보갑비 등의 치안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고, 도로수리 등에 따른 부역의무도 깊어지고 있었다. 「만주국」 시기 남만주의 하층민들 사이에는 생계곤란에 따른 조세 체납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대체로 생활이 곤란한 소작농과 고농 계층에서는 식비 비중이 매우 높았고 현금으로 식량을 구매해 최저생활을 꾸리고 있었으며, 특히 고농층에서는 주거비나 광열비 등 인간생존에 필요한 항목에 상대적으로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다. 아편경작 비중이 큰 촌락에서는 自家생산한 아편을 치료약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식민당국의 방관 속에 아편주입으로 인한 중독자가 많았다. 지주나 자작농 계층에서는 교육비에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지만, 고농층은 가난 때문에 교육비를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었다.

수많은 촌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북만주에 비해, 남만주에서는 조사 대상 촌락들의 수가 적어서 이 분석결과를 곧바로 남만주 농촌의 보편적인 실태로 등시시키거나 북만주 농촌과의 비교분석을 위한 等價的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만주 농촌에 대한 모든 조사보고서들을 일일이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상술한 것처럼 소수의 조사 대상 촌락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시적인 분석결과, 남만주 농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음미하고 부분적인 측면에서 북만주 농촌과의 차별성을 추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다.

결론적으로 남만주 농촌에서도 북만주 농촌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과 그로 인한 농민층의 양극화, 치안불안이 야기한 엄청난 규모의 부재지주 비율, 높은 인구 이동률, 촌락에 대한 만주국 당국의 식민지적 통제·감시와 宣撫활동, 치안비용의 부담과 노역, 아편재배의

음성적 조장 등 ‘개척지적 요소’와 ‘식민지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촌락의 형성이나 사회구성, 운영과정, 촌락민의 각종 생활실태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 참고 문헌

### 1. 1차 자료

- 『間島省教育例規述略』(1934-1939), 間島省公署 編, 『間島例規集』(1939)(『延邊文史資料』 第6輯, 1988에 所收)
- 『滿洲國의 教育制度(四)』, 『滿鮮日報』 1940년 6월 4일자, 1면
- 『滿洲國의 教育制度(三)』, 『滿鮮日報』 1940년 6월 4일자, 1면
- 『滿洲國의 教育制度(五)』, 『滿鮮日報』 1940년 6월 6일자, 1면
- 허정선·강영덕·박태수 주필, 2003, 「所謂“新學制”的制定」,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2,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 龜淵龍長, 1915, 『一般民地』(下卷), 大連: 滿鐵調査課
- 吉林省開拓廳農林科 編, 1939, 『扶餘縣四家子屯(康德五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발행지 미상: 同農林科
- 碓氷武, 1940, 『南滿洲の農村』, 東京: 地人書館
- 滿洲國國務院産業部 編, 1938, 『康德4年度県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査報告書』(全5冊), 新京: 滿洲國國務院産業部
- 滿洲國國務院産業部農務司 編, 1938, 『康德5年度県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査報告書』(全5冊), 新京: 滿洲國國務院産業部農務司
- 滿洲國國務院産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査報告書』(第1~4分冊), 발행지 미상: 同調査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德三年度 縣技士見習生 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 41, 奉天省 法庫縣 第二區五臺子村 團山子屯),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5,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 1, 全3冊),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6,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 36, 第1~4分冊),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康德4年(1937), 『康德3年度県技士見習生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 38~41, 全4冊),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國務院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農村實態調査報告書』(戶別調査之部), 第二分冊, 第三分冊, 第四分冊
-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 『鄉村社會調査報告書』(記述編), 발행지 미상: 同統計處
- 滿洲國國務院統計處 編, 1936, 『鄉村社會調査報告書』(統計編), 발행지 미상: 同統計處
- 滿洲國民政部資料科 編, 1933, 『滿洲國民政年報』(1934年版), 新京: 同資料科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土地關係并に慣行篇(補遺)一齊北濱北兩沿線地方十六縣』, 新京: 同調査局資料科

-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5, 『農村實態調查報告書 康徳元年度戶別調査之部』,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土地關係并に慣行篇--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8), 新京: 同調査局
- 武強 主編, 1993, 『東北淪陷十四年教育史料』第二輯, 長春: 吉林教育出版社
- 善生永助, 1937, 「滿鮮人雜居地帶の部落調査」, 『滿鐵調査月報』第17卷 第5號
- 鈴木小兵衛, 1935, 「中部滿洲於農民分化」, 『滿鐵調査月報』第15卷 第10號
- 韓相準·趙淳卓 監修, 1977, 『世界單位辭典』, 서울: 東南書館

## 2. 연구서

- 滿州史研究會 編, 1964, 『滿洲開發四十年史』(上卷), 東京: 滿洲開發四十年史刊行會
- 박강, 2010, 『아편과 20세기 중국』, 서울: 선인
- 尹輝鐸, 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서울: 一潮閣
- 中兼和津次, 1981,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 東京: アジア政經學會

## 3. 연구논문

- 杜云, 2009, 「偽滿時期師範教育與同期日本師範教育比較分析」, 『長春理工大學學報』(高教版) 第4卷 第2期
- 박강, 1998, 「日本の 中國占領地 阿片政策의 諸様相: 中日戰爭期를 중심으로」, 부산의 대 편, 『外大論叢』 제18권 제3호
- 楊家余·計國菊, 2008, 「試析偽滿學校教育制度及其特點」, 『合肥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1期
- 윤휘탁, 2019,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시기 南滿洲 농촌의 사회구성과 농민의 收支실태-」, 『만주연구』 제27집
- 윤휘탁, 2017, 「'개척'과 '식민'의 중첩적 표상: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실태와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 윤휘탁, 1991, 「1930年代(1934~38) 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 『東洋史學研究』 제35집
- 윤휘탁, 2017,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 『만주연구』 제24집
- 윤휘탁, 2016, 「만주국의 조선인 학교 실태와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8집
- 윤휘탁, 2001,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 '複合 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193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집
- 尹輝鐸, 2016, 「滿洲國의 教育理念과 朝鮮人 教育」, 『中國史研究』 第104輯
- 이경민, 2018,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불교」, 동아대 석당학술원·만주학회 공동 편 집, 『동아시아 각국에서 바라본 만주·만주국』(2018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48 만주연구 제 28 집(2019.10)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집)

투고일 : 2019년 9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0월 2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0월 24일

■ Abstract ■

## The Formation of Southern Manchurian Villages and the Farmer's Life in the Manchukuo Period

Yoon, Hwytak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Manchuria, land seldom included the presence of the privileged class, which the work of Chinese immigrants supplanted. Throughout the pioneering process, land inequality became a grim reality. Southern Manchurian villages formed in conditions often devoid of landlords, but plentiful in with a population of poor Chinese immigrants. These conditions often spelled high rates of migration, with farmers finding it difficult to survive and settle. Koreans contributed to the migratory flows often pushed and pulled between Manchuria and Joseon due to poverty. Many of the consequently unemployed farmers also lacked basic literacy skills. In these villages, religious community activities helped to maintain order in ways that led to self-government without landlords. However, ethnic and class conflicts often arose between the Chinese and Koreans, which often displayed signs of the higher social status of the Chinese enjoyed in comparison to their Korean counterparts. Each village had a very high proportion of landowners, including Japanese colonial institutions and Japanese villagers, which often resulted in farmers bearing high burdens when it came to 'security costs' or protection racket costs. Moreover, the wide education level gap between landowners and poor farmers did not help the latter's plight. Like rural villages in North Manchuria, pioneering and colonial elements played integral roles in rural South Manchuria.

Key words: Manchuria, Manchukuo, Southern Manchuria, rural, frontier, colony, peasant life